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9. 2

주간 달러/원 동향(8/26~8/3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해 시장은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은 1,320원대로 큰 폭 하락 출발. 이어 중동 확산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저점 인식 속 수급상 매수 우위에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330원대를 회복
- 중반, 미 고용 불안감에도 달러 가치가 반등한 측면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 등을 반영하며 추가 상승
- 후반, 국내 증시 부진 지속에도 월말 수급업체 매도물량 유입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2분기 GDP 호조로 인한 빅컷 기대 조정과 PCE물가지수 경계감에 달러는 지지력을 보이면서 1,330원대 중반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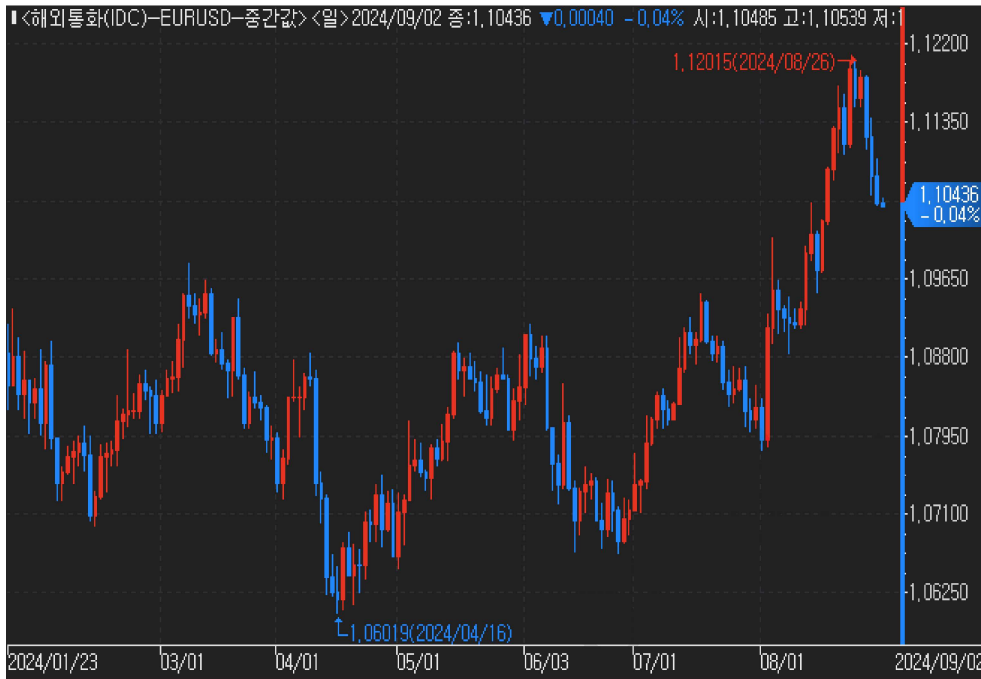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5.0	1,339.7	1,319.4	1,336.0	+11.0

달러/원 전망

- 미국 7월 PCE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소비지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강화를 지지. 이는 연준 9월 '빅컷'에 대한 시장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주 후반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대한 냉각 기대 등이 달러 강세 제한 요인으로 보이는 가운데 1,330원을 중심으로 한 주거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330원 ~ 1,345원

엔·유로화 동향 (8/26~8/30)



유로화 동향

- 주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된 측면을 반영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독일 2분기 GDP가 전기비 -0.1%로 위축세를 보였음에도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 발언에 강세로 전환
- 중반, 독일, 유로존 CPI가 이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CB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약세
- 후반, 독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HICP)이 2.0%로 예상치 2.3%보다 큰 폭 둔화됨에 따라 ECB의 9월 금리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약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예상보다 강한 미 소비지출 데이터에 연준 빅컷 기대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추가 약세를 보이며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인사들의 점진적인 금리인하 강조 발언에 빅컷 기대가 일부 되돌려지면서 달러 반등하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 고용시장 심리 부진에 달러가 재차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강세로 전환
- 중반, 정책 정상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BOJ 부총재의 발언에 경계감이 유입됨에 따라 약세
- 후반, 미 2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데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견조한 미 개인지출 증가세와 소비자심리 개선 등 연착륙 기대 속 강달러 이어지면서 146엔대에서 약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193	1.1202	1.1044	1.1048	-0.0145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4	146.2	143.4	146.2	+1.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26~8/3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정책 조정 시간이 다가옴'을 밝히는 비둘기적 기조 영향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행진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등의 매파 언급과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적 수급 우려 등으로 상승 전환. 중반 들어, 미국 8월 소비자 심리 지수와 고용설문 악화 영향이 미국채 금리 하락을 견인한 점과 국내 국채 차년도 발행 계획 확대 여파 에도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한 양상
- 후반 들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이동시 확신 필요 언급 등이 매파적으로 인식되며 지표물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친 점에 국고채 금리 연동 흐름 후, 주 후반, 7월 PCE를 대기하는 가운데 특이 이슈 부재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도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지속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잭슨홀 미팅에서의 피벗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에 대해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 속 외국인 수급 부재 등으로 소폭 하락 출발. 이어 전일 미 증시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이어가지 못한 영향 및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등으로 약세 지속한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기업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 장중 약세 흐름 이어진 국면 보이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 전화 등으로 코스피는 강보합 반등 시현
- 후반 들어,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소화는 과정에서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실망감 등이 고스란히 코스피 시장으로 전이되며 반도체 업종 하락 견인과 함께 코스피 2,660대 선으로 후퇴. 주 후반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 속 견조한 미 성장률 지표 소식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 속 마감